

칠레 화이트 와인으로의 초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에라주리즈 메소드 트라디시오넬 엑스트라 브뤼, 아콩카구아 코스타 샤르도네, 에라주리즈 맥스 샤르도네, 에라주리즈 라스 피자라스 샤르도네, 에라주리즈 돈 막시미아노. /아영FBC

칠레 와이너리가 다들 보르도와 비슷한 환경의 마이포 밸리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에라주리즈는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아콩카구아 벨리(Aconcagua Valley)로 올라갔다. 칠레 남반부와 서반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이다. 포도나무들은 안데스 산맥의 눈 녹은 물을 마시며 자랐고, 태평양과 남극, 아타카마 사막으로 둘러싼 환경은 섬세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 환상적인 조건이었다.

칠레 마이포 벨리의 레드 와인이 깊고 묵직한 맛으로 이름을 떨쳤다면 아콩카구아 벨리의 화이트 와인은 반짝이는 산도와 우아함으로 이게 어느 나라 와인인지 다시 한 번 와인병을 집어들어 확인하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와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미

되면서 칠레 와인 산업이 태동하던 당시 돈 막시야노 에라주리즈는 칠레 생산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로 날아가 직접 포도품종을 선별해 들여왔다. 우리는 에라주리즈를 칠레 와인의 고급화를 이끈 와인명가로만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한 소위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다.

'에라주리즈 메소드 트라디시오넬 엑스트라 브뤼'는 아는 사람들만 쟁여놓는다는 에라주리즈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 15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출시한 만큼 공도 많이 들였다. 병속에서 5년이나 효모 양금과 접촉하면서 복합미와 산도, 우아함까지 다 잡아냈다. 샤도네이에 피노 누아 품종을 섞어 붉은 과일과 잘 익은 달콤함, 꽃향이 입 안을 채운다.

'아콩카구아 코스타 샤르도네'는 아콩카구아 포도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와인이다. 칠레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만난 그 지점의 느낌 말이다. 산도는 짱하지만 미네랄과 실크같은 품미가 전체적으로 유려한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다. 말린 과일과 견과류 품미가 뒤따라 오며 여운을 길게 남긴다.

'라스 피자라스 샤르도네'는 에라주리즈 화이트 와인 가운데 최상급이다. 프랑스의 그랑크뤼급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출시하고는 4년 만에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으로부터 99점을 받았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칠레 100대 와인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새로 내놓은 2021년 빈티지도 작년 100대 와인 가운데 상위로 선정됐다.

라스 피자라스는 아콩카구아 코스타 테루아에 좀 더 집중했다. 창립자나 생산지를 연상케 하는 다른 와인인 달리 슬레이트 토양(점판암)을 뜻하는 라스 피자라스를 전면내내 세를 정돈도 말이다.

가장 큰 매력은 균형있는 산도에 더해진 복합미다. 감귤류 과일 품미와 꽃향, 바닐라 느낌까지 조화롭고, 뒤이어서는 갖구운 빵과 말린 과일의 독특한 품미가 남는다.

아영FBC 관계자는 "한국의 와인시장을 보면 과거와 달리 화이트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에라주리즈 와인은 아콩카구아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대중성 높은 화이트 와인부터 고급 화이트 와인까지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정치·역사·예술 등 중국문화 입문서

오랜 시간 이웃으로 지내온 한국과 중국은 지난한 역사 속에서 사납게 부딪히며 함께 성장해왔다. 혐오의 감정은 이해를 통해 얼어붙는 말처럼, 양국에 만연한 반중 정서와 혐한 분위기가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중국은 어깨를 맞대고 영원히 함께해야 할 이웃이다"며 "반중(反中)을 넘어 극중(克中)하려면 먼저 지중(知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문화 301테마 1·2
심현섭 지음/글로브콘텐츠

향기는 질게 남았다. 4장 '예술'에서는 한자, 서예, 문학, 회화, 도자기 등을 소개하고 건축물과 원림, 음악, 영화까지 내용을 확장한다. 민중의 삶과 애환이 담긴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이어서 장엄한 만리장성, 화려한 자금성 같은 건축물을 포함해 석굴, 누각, 원림 등 중국다운 스케일의 다양한 볼거리를 다룬다. 또 전통극, 전통음악과 더불어 세계 영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영화를 뜯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등려군뿐만 아니라 장국영, 이소룡, 장만옥 등 친숙한 이름의 배우와 영화가 등장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파트이다. 마지막 장인 '삶과 여행'에서는 중국의 먹거리를 비롯한 의식주, 무술과 오락, 미신, 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둘러보며 301테마 여행을 마무리한다. 오랫동안 함께한, 오래도록 함께할 우리의 이웃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중국문화 입문서. 각 396·392쪽. 각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숲은 깊고 아름다운데

공주가 용에게 잡혀가고, 왕자가 용을 물리친다. 이후 둘은 결혼한다. 흔하디 흔한 전래동화 속 이야기. 용은 왜 공주만 잡아갈까? 저자는 애초에 용은 여자를 잡아간 게 아니라고 말한다. 용이 사실은 여자 그 자체라는 것. 여자에게는 용처럼 제멋대로인 야성과 과위가 있다. 과거 가부장제 사회는 용맹하고 거친 여자를 거부했다. 기사가 용을 공격

하자, 여자는 용의 면모를 버린 뒤 여러 고연악한 공주의 모습만 갖고 백마 탄 왕자를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책은 묻는다. 21세기 여성이 공주로 살면 행복하겠냐고. 기사가 돼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왕이 돼 나라를 세우는 게 훨씬 더 근사한 일이지 않을까. 여성주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전래동화의 세계. 236쪽. 1만6800원.

조이스 박 지음/제이포럼



나쁜 책

국가나 종교, 정치권력은 사람들을 깨우는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독자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판사를 협박하거나 인쇄된 책을 회수해 불살랐다. 그들은 '나쁜 책'이 나와 가족을 부도덕한 사상에 물들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서를 두려워한 자들은 '천지개벽'이 아닌 '현상 유지'를 원했다. 그럼에도 문학은 그 자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니고 있어 불에 덴 듯한 뜨거운 문장으로 독자의 심장을 후벼팠다. 위대한 작가들은 출생지도, 태어난 시기도 달랐지만 하나의 관점을 공유했다. '안전하지 못한 책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인류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처형됐으나,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추동케 한 금서들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기. 404쪽. 1만9800원.

김유태 지음/글항아리



비정상체중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외국인혐오...' 세상에 다양한 혐오가 존재한다. 이중 비만혐오는 자주 정당화되곤 한다. 책은 오랜 시간 견고하게 자리 잡은 비만혐오의 문화를 파헤치며 이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너뜨려왔는지를 까발린다. 몸에 끊임없이 도덕적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해 죄책감을 부여하는 비만혐오는 계급, 인종, 젠

더의 영역과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는 이유는 개인의 고유함이 어우러져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유연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몸의 사이즈 역시 마찬가지. 뚱뚱한 몸을 평가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비만혐오 사회에 당당히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책. 352쪽. 2만원.

케이트 맨 지음/이초희 옮김/현암사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스라엘, 이란 공격 이틀 뒤 재보복 계획...美 만류에 연기"
▲ '팔 유엔 정회원국 가입' 19일 안보리서 표결...美 거부권 행사할 듯 /사진 뉴시스

▲ "언론탄압" 주장에...조지아 경찰, 시위대에 최루탄 발사
▲ 바이든 "中철강회사 부정행위"...美 USTR "철저한 조사"



▲ IMF "세계 부채 증가 美·中이 주도...선거의 해, 재정 지출 억제 필요"
▲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3% 유지... "중동리스크" 미반영 /사진 뉴시스